

2020년 봄호

제 98호 2020년 4월 6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7)

발행인 · 박형대 / 편집인 · 이경건 / 학생기자 · 남명현 이재백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진.나.빛
100호 작업중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상세내용 7면)

서기연 연합예배 연기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 및 세계적 유행으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4월 중순까지 연장되어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연합예배는 5월 25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기에,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정현석 교수
- 2면 서기연대표 이임사 ... 유예나
중앙위 퇴임사 ... 구자훈
- 3면 서기연 신앙 OT 기획단 입장문
서기연의 노래... 편집부
신앙OT준비팀의 글 ... 나경찬
신앙OT준비팀의 글 ... 류승현
- 4면 수양회 간증글 ... 김현서
전도여행 간증글 ... 고은영
- 5-7면 선교단체 소개글
- 7면 <진리는 나의 빛> 100호 발간 준비
안내 ... 편집부
- 8면 신천지 학내 우편배송 사건 ... 편집부
2020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
신임기자 취임사 ... 남명현

교수 칼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 한 인간의 삶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려는 투쟁의 연속이다. 이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안식도, 만족도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비극은 누구도 이 일에서 궁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얻었다고 해도 마치 파도가 치거나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이 취약한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결국 모래성 안에서 잠시 안주하거나, 혹은 더 좋은 모래성을 쌓기 위한 극한 목마름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일생은 소모되어 간다.

인간 사회는 이러한 존재 의미의 증명을 위한 극한투쟁의 장과도 같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들과 동문들은 아마도 이러한 투쟁에서 제법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통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통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려고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직하다면 과연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깊은 속의 목마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을 향한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전도서 3:11)고 말한다. 파스칼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없이 독자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 결핍은 그가 자신의 존재의 완성을 위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도록 만든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남편을 통해 확인받으려고 했다. 그녀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존재 의미의 완성이 되어줄 수 없었고, 여섯 번째의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목마른 사람이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마셔도 마셔도 끝없이 갈증이 나는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았다. 그녀는 이 삶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이제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물물을 길어온 그녀에게 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그분의 폭포수와 같은 선포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의 귓전을 울렸을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시원한 생수와 같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과 같이, 신선한 공기와 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목마름 속에서 끝이 없는 투쟁을 계속하는 비참한 길임을 보여준다.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투쟁의 인생을 살기를 고집한다면, 고단한 여정 속에 끝없는 갈증만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인간 존재의 참된 완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굶주린 영혼을 채울 수 없었던 대학 신입생 시절, 마침내 나의 존재를 채우실 수 있는 단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삶에 가장 큰 전환이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맛보았던 생수와 같이 나의 깊은 속을 적시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적시고 있다. 이제 나에게 있는 작은 소망은 서울대학교의 목마른 이들과 함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그분 안에서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을 모르고 공허함 속에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이 못내 안쓰러운 것은 정확히 30년 전의 내가 생각나서 일까? 관악 교정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정현석 교수(물리천문학부)

2019년 서기연 대표 퇴임사



안녕하세요. 2019년 서기연 대표로 섬겼던 유에나(아동가족 14)입니다. 진나빛 지면을 빌어 이렇게 퇴임사를 쓰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늘 저와 함께하시며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기연 활동과 진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을 비롯한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서기연이라는 연합체 안에 단체 사이를 오가며 다니기도 하고, 제 학업과 진로, 기연 활동 사이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 옆에서 든든하게 동역해준 자훈, 은진, 영서, 인비, 태준, 민호, 명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서기연 활동을 하면서 울고, 웃고, 기도했던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단 모두 고맙습니다.

작년은 특히 서기연의 새로운 시도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개종강예배에서 베리타스 렉처나 말씀 사경회를 열었고 빵나눔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단과대학 및 과기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고 단체지원도 늘렸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니 이 중에서 제가 계획한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 입술에서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기연 지체들에게 연합에 대한 기대를 부어주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며 서울대 캠퍼스 복음화와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대표인 홍영서 자매와 중앙위원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도, 대학 생활도 점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서기연 지체들 중에서 교회와 선교단체 혹은 단과대/과기도모임을 같이 섬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하여 학업이나 진로 준비를 병행하게 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남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지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가운데 저와 같이 학업과 공동체 역할을 병행해야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전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과 같이 지키십시오. 정신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깊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둘째, 주변 지체들에게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니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일 년이 참 빠릅니다. 서기연 대표로 섬길 지 기도로 구하던 때가 딱 일 년 전입니다. 그때 저에게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물을 손에 한가득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었고, 때로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항상 제 눈물을 닦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에 제가 그랬던 것 같이 울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 방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을 주님이 부디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또한 서기연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저의 이 서툰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캠퍼스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주세요.

유에나(아동가족 14)

중앙위 퇴임사



안녕하세요, 2019년도 중앙위원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 14학번 구자훈입니다. 저는 입학한지 6년 만에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같은 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졸업 및 중앙위 퇴임 기념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진나빛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졸업을 하는 소감은 정말 아쉽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학부생으로 더 오래 학교에 남아서 캠퍼스를 위한 일을 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 상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부터 인턴 신분으로 대학원 연구실에 있으면서 대학원생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부생일 때 비해서 대학원생은 여러 면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부생일 때 당연하게 주어졌던 공강 시간들과 1년에 4달 이상 되는 방학이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부생 때는 수업 시간만 아니면 마음껏 전도하러 갈 수도 있었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방학에는 당연히 여름/겨울 수련회에 마음대로 갈 수도 있었지만 대학원생이 되면 그런 것들에 제약이 걸리고 마음대로 수련회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든 새롭게 주시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했지만 어딘가에 구속되지 않았던 학부생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련한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학부생 여러분, 지금 이 시기의 자유가 정말 소중한 것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이 되면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시면 더욱 크게 느끼실 겁니다! 정말 학

부생 시절이 좋은 때입니다.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과 혹은 단체 기독교인 모임도 섬길 수 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성경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여름 겨울 두 달씩의 방학은 더 큰 사회에 나가기 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알바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는 좋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기에 아주 적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성경을 공부해놓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여러 선배들을 봤던 것과 제가 직접 경험한 것에 따르면 대학 시절은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때 얼마나 준비되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지를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생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6년 간의 대학 생활에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아쉬움과 학부 때 더 잘 했어야 했다는 마음도 있지만 캠퍼스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ECU라는 선교단체를 1학년 2학기부터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공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침마다 졸음을 이겨내면서 캠퍼스를 위한 기도회를 했던 것, 매우 두렵지만 캠퍼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모임을 했던 것, 사람들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회의하던 것들 모두가 학부 시절에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대학 시절에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대학 시절을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한심하고 미련한 죄인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캠퍼스를 위해서 덤고, 출고, 다리 아프고, 긴장 되고, 졸리고, 무시 당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매우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물론 대학원에 와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부생 때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서기연 지체분들도 대학 생활을 주님과 함께 기쁘고 흥미진진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위원으로서의 두 학기도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연 사역에 깊이 들어와서 캠퍼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서기연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좋았습니다. 중앙위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매주 있었던 중앙위 회의였습니다. 다른 중앙위들에게 맡은 하지 않았지만 캠퍼스의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매주 중앙위 회의가 기다려졌고 연구실 인턴을 할 때는 중앙위 회의가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았고 캠퍼스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위들도 캠퍼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안건들을 제안하면서 회의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같이 놀러 갔던 것도 좋았고 함께 캠퍼스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던 것들이 좋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일 년간 함께 캠퍼스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중앙위원단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중앙위로 섬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면이 짧네요. 저는 비록 학부를 졸업하고 중앙위로 내려놓게 되지만 대학원생으로서, 그리고 ECU 대표로서 계속 캠퍼스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풀타임으로 캠퍼스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 대학생 기간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기연 지체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흥미진진한 대학 시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훈(건축 14)

서기연 신앙 OT 기획단 입장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앙OT준비팀, 재학생 및 새내기분들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0년 <제 24회 서울대 새내기 신앙OT>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100명 이상의 학생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 신앙OT가 무리라는 것이 신앙OT 기획단 회의의 최종 의견이었습니다. 4월 중순

경으로 신앙OT를 연기하는 등의 여러 대안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의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행사를 강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공동체와 많은 이웃이 고통에 빠진 시기에 모두의 보건과 안녕을 위해서도 이러한 결정이 불가피한 듯합니다.

작년 9월 오티 기도준비팀이 모여 주제 말씀을 구하며 신앙OT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에스겔 36장 25-26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기독교인 학생들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인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2020년 서울대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티를 준비했습니다.

신앙OT준비팀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서기연 신앙 OT ‘서기연의 노래’를 작사한 국문과 15학번 나경찬입니다. 우선 OT 준비 기도팀을 통해 이명찬 형제님과 함께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내기 신앙 OT팀이 본격적으로 꾸러지기도 몇 달

전부터 시간과 마음을 들여 기도

로 신앙 OT를 준비하는 기도팀을 보며 저도 더 도전받고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곡이 새내기들을 위한 곡이라는 것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네요. 그러나 처음 전달한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이후 명찬 형제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새내기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야겠구나.’라고 작사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로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제가 정말로 새내기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을

2020 신앙OT를 준비하기 위해 총 75명 이상의 재학생, 34명의 새내기, 간사님 및 기독교수님, 학부모 기도회 등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OT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단을 신뢰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재학생 및 새내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6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OT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팀 지체들은 기획단, 헬퍼팀, 프로그램팀, 홍보팀, 중보기도팀, 데코팀, 전체모임팀, 행정팀, “서기연의 노래”팀, 디자인팀, 신앙OT준비기도팀, 폐회예배 찬양팀 등에서 힘써주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새내기를 위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에 신앙OT를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신앙OT는 취소되었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행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이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길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0년도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 30주년을 맞이하는 올 2020년에 하나님께서 서울대에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서기연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서울대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서울대기독교인연합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4회 새내기 신앙OT 기획단 일동

서기연의 노래

서울대기독교인연합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서기연의 노래’를 작사 및 작곡했습니다. 나경찬(국문 15), 이명찬(독교 18) 형제가 작사로, 류승현(작곡 18) 형제가 작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서기연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서울대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서기연의 노래

작곡 류승현 (CCC)
작사 나경찬 (JOY)
이명찬 (CCC)

세상 이 전 함 없는 소 식 을 믿 신 계 알려 줄 게요
그대 는 어 떤 모습 이 라 도 주 님 이 사 랑 하 신 단 걸
새 술 밭 이 어 도 이 마 겠 고 계 신 쓴 예 수 놀 지 않 으
시 조 어 지 런 세 상 의 잘 들 들 고 주 님 께 서 위 로 하 시 조 매 마
쁜 이 땅 의 가 슬 예 주 님 의 눈 을 부 리 며 한 걸 들 걸 음 나 이 가 요 우 리
등 뒤 에 서 우 월 지 키 시 니 두 러 워 달 고 주 와 함 께 걸 어 가 요
발 들 때 기 도 망 설 어 지 는 록 고 록 은 길 이 겠 지 만 사 랑
과 기 뻐 의 빛 이 우 리 앞 에 빛 나 고 있 죠 매 마 켜 이 땅 의 가 슬

에 주 님 의 눈 을 부 리 며 한 걸 들 걸 음 나 이 가 요 우 리
등 뒤 에 서 우 월 지 키 시 니 두 러 워 달 고 주 와 함 께 걸 어 가 요

사랑받을만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구나.’ 이 한 가지 깨달음은 정말로,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요. 네,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바라보고 평가하던 나를 부인하면,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다시, 그러던 나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채점하고 평가하는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으리라는 것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세상에 가득한 게 그런 소리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소리들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은 듣게 될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17 중)”

나경찬(국문 15)

신앙OT준비팀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서기연 신앙 OT ‘서기연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과 18학번 류승현입니다. 저는 작곡가, 창작자를 꿈꾸면서 제가 창작한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목표라기엔 다소 소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신 이신우 선생님께서 성경 텍스트를 활용한 곡

을 자주 쓰십니다. 저는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며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곡은 마치 글을 쓰는 것과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부가 선행된 채로 저

저는 CCC에서 키보드 반주로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

작년 CCC 여름수련회 때 진행된 CCM 자작곡 공모전을 지체들과 함께 준비해서 출품했습니다. 비록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밤낮 없이 곡을 쓰고 CCC 지체들과 함께 녹음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 너무나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특히 무난하게 작업하는 것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OT 기획단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서기연의 노래’를 작곡할 때, 지난번 자작곡을 쓰며 배우고 느낀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곡을 쓰기에 앞서서 쓰려고 하는 장르의 발라드와 CCM을 분석하며 들어보았고 특히 제이어스의 편곡, 드럼 연주법을 눈여겨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제가 한참 겨울왕국 노래들에 감명을 받았을 때 작업을 해서 약간의 전조를 활용해서 뮤지컬 곡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노래를 함께 부르는 지체들이 부르기 쉽도록 전조하는 구간의 앞뒤가 서로 같은 음이 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계획과 작사를 해준 지체들의 가사를

바탕으로 코드네임이 붙은 악보의 형태로 우선 곡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피아노 솔로 반주로 된 데모 음원을 제작했고, 최종적으로 밴드로 된 편곡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기연의 노래’를 작곡하게 하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곡이 저의 욕심이나 명예를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가르치심이 곡에 진정 녹아들어 그것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던 무난한 곡과 좋은 곡의 미묘한 차이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다시 무난한 곡이 된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이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곡이 여러 지체들에게, 특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입생 친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현(작곡 18)

수양회 간증글

수련회 리부트 2020

- 기존의 수련회 되짚으며 새로운 수련회 기대하기 -



들어가며

우선 필자가 초중고 수련회 풀참과 선교단체 수련회 풀참에 빛나는 희귀한 프로 참석러이며 수련회의 순기능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와는 다르게 수련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을 땐 좀 당황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마귀의 영 때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

한다. 적어도 실제로 어려움을 느꼈만한 요소 -가령 개인적인 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 -가 있는 것은 맞다. 한편 '정치적으로 옳은' 것을 성찰하는 시대에 수련회의 특정 요소가 힘든 사람이 있다. 수많은 일회용품, 소수자가 고려되지 않는 식사 문화, 차별적인 발화와 그것이 용인되는 분위기. 기독교 사회는 변화가 빠른 편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10년 동안 교회의 수련회 문화는 거의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시도하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많은 관계자를 근심케 하는 불참율과 회의감의 증대는 수련회의 순기능뿐 아니라 한계를 돌아볼 때에 더 건설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기고문은 그간 변하지 않은 수련회 문화가 시대와 한 걸음 한 걸음 소통해나가며 그 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꿈꾸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본다.

자연: '모두'를 품는 하나님 나라

대규모 인원의 숙박은 유독 많은 일회용품이 쓰이고 또 버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는 이번 한국기독교학회(이하 IVF)의 수련회가 긍정적인 시도로 참조될 만하다. 이번 IVF 수련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매점에 이어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에코부스를 운영했다. 종이컵이 아닌 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고, 100% 씩어 없어지는 생분해 비닐, 종이 빨대, 대나무 칫솔, 장바구니를 무인 판매했다. 성경 속 생태계 관련 말씀과 생태 관련 보드게임도 소개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참고하여, 비거니즘 실천자를 비롯한 식이 소수자를 위한 식단 고려, 실무 차원에서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텀블러 사용 공식적 장려 등이 구조 내에 정착된다면 자연은 물론 소수자와 공존할 수 있는 수련회 공간이 조성되지 않을까?:

잠과 쉽: 7시 기상 필수? 일상의 지속가능성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인데, 수련회를 어려워하는 이유 투탑 중 하나는 꽤 박박한 일정으로 인한 피로, 그것을 풀만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하기보다는 소모적인 시간이 된다. 일정을 소화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수련회=힘든 곳'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수련회의 순기능을 누릴 기회는 상실된다. 수련회가 피로의 역치가 높은 소수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면, 지치기를 각오하고 오는 공간이 아닌, 접근 장벽이 낮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이미 교회밖에서 지나치게 소모되고 지쳐있으니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사례로서 필자가 4년 풀참한 수련회 중 하나를 소개한다. 이 수련회에서는 각각의 선택 강의 대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게는 행복했을 뿐 아니라 분명 가장 역동적인 신앙적, 관계적 깊이를 누린 수련회였다. 기도와 관계는 여유를 바탕으로 쌓인다. 지속 가능한 수련회를 위해, 조금 늦은 기상 시간과 충분한 여유 시간을 보장하는 구조도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과 자유: '아싸'도 마음 편한 수련회

나는 '아싸'인데, 정확히는 낮을 아주 많이 가리고, 친밀감을 쌓거나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수련회에는 아싸에게 취약한 특징들이 많으며 이것이 필자의 '뇌피셜'에 기반한 수련회 기피 요소 투탑 중 나머지 하나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있어야 하는데, 나는 어머니랑도 하루 종일 있으면 지치는 사람이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과 나눴고 하고 합숙하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공동 행동을 전제한다. 그러니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추구가, 이런 내향적인 사람의 사례까지 조화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IVF에서는 n박n+1일의 수련회 대신 한 주에 한 번씩 총 4회 모이는 대안적 수련회를 구상해보고 있는데, 실현 여부를 떠나 나에게만은 환영할만한 제안이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바라기도 어렵다면 문화적으로도 개인주의를 마냥 나쁘다고 여기기보다는, 혼자서의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시간이 필요할 때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면 어떨까. 위 단락에서 언급한 구조처럼 말이다.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형태: 저녁 강해는 필수?

오랜 시간 동안 수련회의 핵심 컨텐츠는 기도회와 말씀 강해였다. 그런데 강해, 혹은 기도회는, 꼭 필요한 시간일까? 좀 당황스럽지만 상상만 해보자.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해의 큰 의의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의 촉매제(trigger)가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 대 수십, 수백 명의 강해는 구조적인 획일성 상 본질적으로 각자의 구체성을 만지기 어렵다. 이것은 교회에서 말씀 설교가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이지는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훨씬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는 없을까? 소그룹의 나눔이나 공부를 메인 트리거로 하는 기도회, 찬양만 연주되고

스스로 사색하는 기도회, 외침도 조용함도 인정되는 기도회 등. 기존의 강해 자체도 절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핵심이자 필수라고 생각한 것조차 그렇지는 않음을 안다면 여러 상상을 통한 유익을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련회의 합숙, 강해, 기도라는 포맷은 필수는 아니며, 때문에 참여자들에 의한 다양한 상상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여성: 기독교 안의 남성중심주의 생각하기

혹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도 있다. 나는 많은 수련회에서 여성 혐오적 사건을 마주한 기억이 있다. 몇몇 남성들이 성차별적이고 다소 모욕적인 대화를 몰래 나누는 것을 듣기도 하고, 당사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발언에 경악하기도 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닌 기억은 더 많다.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는 개신교 사회에도 깊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다. 몇 년 전에 비해 여성 혐오 담론의 논쟁이 진정된 듯 보이는 지금도 상처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야 큰 변화든, 단 한 명을 위한 위로든 시작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가며

한국에서 개신교 수련회가 처음 시작한 시기를 1920년대로 추측하곤 한다. 그러므로 올해는 교회 수련회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수련회라는 장치가 길게 이어져 온 만큼 그 좋은 점과 더불어 아쉬운 요소를 새롭게 보완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한편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여러 고민의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영역도 고민할 수 있는 주제다. 한국 사회나 기독교 내에서 이 주제는 신학적, 감정적으로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다. 이때 문제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길 갈망하는 성소수자 개인들이 안전한 도움 속에 신앙적 여정을 이어갈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상처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를 고민하게 된다.

나는 위에서 내 제안을 매번 질문의 형식으로 끝내고자 했는데, 내게 어떤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과 논의를 통해서야 비로소 새로운 수련회 담론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대해본다. 그러면 읽어주심에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수련회 기획 관련자가 있으시다면 함께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련회에서 지치거나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께서 혼자서 아니었다는 것이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의 수련회가 모두의 수련회로 개선되어 모두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2020년이기를 기도한다.

김현서(정치외교 16)

전도여행 간증글

꽃동네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YWAM을 섬기고 있는 종교학과 18학번 고은영입니다. 저희 YWAM은 이번 겨울방학동안 해외 타자니아 전도여행, 그리고 국내 꽃동네 봉사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 저는 4박5일 동안 꽃동네 요양병원에서 진행한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경험하며 배운 하나님의 공

하심과 섬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년 가을학기를 휴학하고 타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며 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기간보다

빠르게 귀국을 준비하며 겨울 방학 기간과 복학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어 가는데, 바쁘게 대외 활동을 하거나 화려한 경력을 쌓고,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을 타국에서 바라보며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 가면 대외활동도 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대외활동을 찾아보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YWAM 국내 전도여행에서 꽃동네봉사활동을 간다는 소식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내전도여행팀은 꽃동네 봉사를 준비하며 헨리 나우웬의 <공화>를 함께 읽고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공화'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공화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화는 단순히 남을 '마음'으로 가엽고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도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 받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란, 좀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화와 그로 인한 섬김이 단순히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화와 섬김의 정의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렇게 공화와 섬김에 대한 묵상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니 저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첫날, 분명 섬김을 사모하며 나아온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저는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 이정도만 해도 잘 한 거다, 칭찬 받아도 된다, 적당히 자원봉사자만큼 대우받으며 해도 된다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저도 몰랐던 연약함을 깨닫고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 기간 중 잠시 아동 입양기관부터 공동묘지까

지에 이르는 꽃동네 기관들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대 초반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뇌질환으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 3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 꽃동네에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적은 용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며 지내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고 저의 연약함을 또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불평들은 아무 의미 없이 보잘 것 없는 불평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긍휼을 실천하려는 저의 마음은 아주 작아보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면서, 이제는 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의 구분이 너무나도 불편해졌습니다. 봉사 초반엔 내가 젊은 자원 봉사자로서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그 기관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시고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식사할 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는

자고 받는 자인지를 구분 짓고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는데, 우리들이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됨을 방해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교만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과 강박이 사라지고 마치 할머니들과 놀러온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와상환자 할머니들의 얼굴의 로션을 발라드리면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고 늘 생각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한 가지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머지 않으신 할머니들을 보며, 그러면 사회는 할머니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말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회는 무언가를 잘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할머니 한 분 한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갓난아기부터 내 앞에 계신 할머니들까지 혹여나 질병으로 평생을 누워 꼼짝을 못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존재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꽃동네 봉사활동을 하며 대단한 큰 울림이나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또 그러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긍휼'을 베푼다는 것, 고통 받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막연한 숙제이지만, 꽃동네 봉사활동을 통해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또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학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은영(종교 18)

선교단체 소개글

JOY

대표: 정소연 (농경사 17)
연락처: 010-2121-9074
모임 장소: 미정
모임 시간: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동아리방: 학생회관 422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JOY라는 이름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의 약자를 따서 줄인 말이에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여길 때 참 기쁨(JOY)이 있다는 정신을 중심에 두고, 그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에 동의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면 참 기쁨이 있나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복음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사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나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JFM (Jesus First Meeting) 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자주 밥을 먹기 위해 모이면서 서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고민합니다. MT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자주 소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요. 또 매 학기마다 성경공부 모임이 열리고, 신앙서적 북스터디를 하기도 해요. 방학에는 수양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JOYer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 학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422호 문을 두드리시거나 연락주세요~

CMI

대표: 조지은(사회 18)
연락처: 010-3115-0913
모임 장소: 낙성대역 인근 샘터
모임 시간: 목요일 저녁 7시
동아리방: 학생회관 421호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국제대학선교협의회)

CMI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서울대 CMI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시대와 캠퍼스에 목자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CMI는 일대일 성경공부, 영어 성경 읽기, 예배의 섬김 등을 통해 각 지체들의 신앙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 예배와 정기적인 수양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목동, 목자 임명식으로 이 시대와 캠퍼스를 위해서 목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일대일 성경공부 인도자, 직접 말씀을 전하는 학생 메신저,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섬기는 협력 간사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MI는 삶의 각 부분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더욱 더 닮아가며,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사랑선교회

대표: 박승성(간사)
연락처: 010-6372-6128
동아리방: 학생회관 421호

한사랑선교회(The Love Mission)는 1971년 서울대에서 태동된 공동체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제자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전도자.양육자.사명자로 세우는 일대일 혹은 소그룹 7단계 양육과정(이) 있으며 기도모임과 매주 캠퍼스 노방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언어교화와 한국문화체험으로 친구를 맺고 사랑의 섬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섬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세대로 함께 자라가는 이곳으로 2020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예수전도단(YWAM)

대표: 김현아(작곡이론 15), 이탄일(생명과학 18)
연락처: 010-5001-4089, 010-4784-8038
모임 장소: 추후 공지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동아리방: 학생회관 416호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모토 아래 사역하는 YWAM(Youth With A Mission, 예수전도단)은 우리의 삶, 캠퍼스,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배하는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학기 중 YWAMer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28동 103호에서 캠퍼스모임으로, 목요일 6시 30분에는 홍대 레드빅스페이스에서 서울의 모든 대학생 YWAMer들과 함께 캠퍼스워십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외에도 ‘패밀리’라는 소그룹 모임, 중보기도 모임, 아침 묵상 모임, 책모임 등 다양한 모임으로 가족됨과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학 중에 저희는 1주간의 국내전도여행 혹은 3주간의 해외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탄자니아와 동북아시아, 국내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표: 강드보라 (생명원)
연락처: 010-5059-4376
모임 장소: 75동(농식 옆 대학신문 건물) 109호
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동아리방: 모임 장소와 동일

UBF는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입니다. 국내와 전세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첫째로, 우리 UBF는 1:1 성경공부를 합니다. 멘토 선배와 1:1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며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가 대학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어진 선배들의 체험적 간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지체들 간에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배울 수 있습니다. 1:1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학기별 MT와 여름바이블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매주 한 번씩 채플(Bible Cafe)가 있습니다. 다함께 모여 선배들이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에 기초한 간증을 듣습니다. 캠퍼스의 선후배들과 때로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까지 초청한 가운데 다양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간증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격려가 됩니다.

CCC

대표: 이대희 (경영 16)
연락처: 010-4558-6512
모임 장소: 추후 안내
모임 시간: 화요일 오후 6시 30분
동아리방: 학생회관 420호

민족복음화의 최전방 서울대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Building Movements Everywhere"

서울대 CCC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캠퍼스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순모임", 전국의 CCC 캠퍼스들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 금식 수련회 등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향력 있는 제자들(하동영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캠퍼스에서 예배와 기도회 시간을 가지며, 목요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나눔이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CCC를 찾아주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루선교회

대표: 김재영 (물천 12)
연락처: 010-3092-3742
모임 장소: 소그룹별 모임
모임 시간: 소그룹별/매주 함께 식사모임

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

두루선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의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 전파하시며 (preaching ministry) 고치시는 (healing ministry)" 사역을 본받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자 가장 큰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28:19)'"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음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 두루의 비전입니다! 복음을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다룬 두루제자훈련 교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비추고 훈련해갈 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열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루는 서울대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선교단체로, 현재 서울에서만 약 20개의 대학에서 활동하며 함께 공동체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자훈련은 1:1~3 정도의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학기마다 연합 개강/종강 채플, 체육대회, 아웃팅 등을 통해 다른 대학의 두루인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두루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표인 제게 연락주세요!

네비게이토선교회

대표: 박태준 (지환 14)
연락처: 010-2528-0567
모임 장소: 500동 강의실
모임 시간: 토요일
동아리방: 학생회관 608호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28:19)"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기독인 신입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예수님께서서는 지적(지혜), 신체적(키), 영적(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면에서 균형 잡힌 온전한 성장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성경공부와 암송, 전공 공부, 운동 교제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본을 따라 균형있게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원하시는 새내기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LDI

대표: 강하은 (영문 16)
연락처: 010-2665-9006

서울대 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서울대 LDI는 기독교 크리스천 리더십 동아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20)에 순종하여,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와 세계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DI에서는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겨자씨 기도회〉

월~금 08:30~09:00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한다!! 나도 부지런한 아침을 세워보고 싶는데... 항상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ㅠㅠ

함께 캠퍼스 기도회로 아침을 깨우고 알찬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

〈수요 캠퍼스 모임〉

수요일 18:30~20:00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학우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학우들과의 아가페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수요일 캠퍼스 모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리더심훈련 : 일대일 멘토링, 토요 동아리 연합 세미나, 가정세미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OO야,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QT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학업 및 대인관계 고민 등을 함께 해결해가고... 교수님과 각 분야 전문가 등 명사초청특강은 덤! 제자리더심훈련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계발하고 싶다면, Follow us!

〈세계로! 미션트립〉

혹시 이번 미션트립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홍콩과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주요 캠퍼스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미래의 Global leadership :)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대표: 장효근(사교 17), 허성준(지환 17)
연락처: 010-6554-8780, 010-5512-1630
모임 시간 및 장소: 추후 결정. 대표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동아리방: 학생회관 416호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의 비전을 갖는 연합 기독교동아리입니다. IVF에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학생들이 모여,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세우며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모임,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경공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저희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대 IVFer 모두가 함께하는 큰모임에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매주 목요일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공동체와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며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인 소, 중그룹 모임과 아침 기도회, 선후배간의 진솔한 원투원(one-to-one)을 통해 믿음을 세워가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ABSK

대표: 원종범 (건환공 17)
연락처: 010-3378-1289
모임 장소: 아시아연구소(101동) 417호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18:00

ABSK(Asian Baptist Student Koinonia)는 복음을 통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 1991년 Harvard 대학교에서 시작한 아시아 학생들의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ABSK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ABSK는 현재 국내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한국의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Harvard, MIT, Wellesle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aryland, UCLA 등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주 캠퍼스 성경공부, 북클럽, 보드게임,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매년 미국 ABSK 학생들과 함께 해외 선교여행에 참여하고 ABSK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BS)

대표: 김용섭(재료공학 박사과정)
연락처: 010-5360-7476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y) 'IBS'입니다.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2014년 시작되어 6년째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IBS는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복음전도와 양육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생활에서 겪는 인간관계, 학업, 진로 등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과 진실된 관계를 배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IBS!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누기 원하는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는 정기모임과 섬김과 나눔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함께 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IBS에서 만나요!!!

ECU

대표: 구자훈(건공 14)
연락처: 010-8998-6564

ECU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캠퍼스 복음화에 힘쓰는 모임이에요!

각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캠퍼스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대학과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불신자와 초신자를 위한 모임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캠퍼스 노방전도를 통해 직접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상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대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찾고 계시다면,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원하신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JDM(Jesus Disciples Movement 예수제자운동)

대표: 허우진 (영교 15)
연락처: 010-4010-8403
모임 장소: 숭실대학교 강의실(향후 안내 예정)
모임 시간: 화요일 저녁 7시

JDM은 국내외 약 300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캠퍼스 선교단체로, Jesus Disciples Movement의 약자입니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 28:19-20)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세계선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JDM은 연합동아리로서, 서울대학교는 서울지구 남부에 속하여 숭실대, 가톨릭대, 총신대 등과 함께 숭실대 강의실에서 매주 채플을 드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는 소그룹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맛집도 많이 탐방합니다! 또한 매년 전국의 지체들이 모이는 여름집회와 서울지구가 모이는 겨울집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회 등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삶에 비추며, 더욱 사랑을 나누기 위해 분투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캠퍼스에서의 삶을 고민하며 제자로서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ESF

대표: 김진형 (농경 14)
연락처: 010-7131-1744
모임 장소: ESF 관악회관(낙성대동), 공대기연룸
모임 시간: 화요일 19:00(소그룹 성경공부), 목요일 18:30(캠퍼스 연합 예배)

ESF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된 단체로,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적 초교파 학생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큐티모임을 갖고, 양-목자 관계로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캠퍼스에서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한답니다.

또 ESF는 연합동아리로서, 각 지구별 회관에서 다른 캠퍼스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대학교 친구들 -경인교대 숭실대 총신대 중앙대 등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Especially For you,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공동체에 어서 오세요!

SFC

대표: 손영훈 (물교 15)
연락처: 010-6362-6355
모임 장소: 학생회관 419호 (동아리방)
모임 시간: 목요일 18:00
동아리방: 학생회관 419호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에 따라 개혁주의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학생신앙운동입니다. SFC는 매주 목요일 6시, 학관 419호에서 '큰 모임'을 가지니, 저희 SFC와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기쁘게 찬양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진리는 나의 빛> 100호 발간 준비 안내

1994년에 창간된 본지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가을 100호를 맞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추억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고받습니다.
100호 발간을 빛내주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학생기자 남명현 (010-4999-0350, nmh99@snu.ac.kr) / 학생기자 이재백 (010-2614-7556, woqor10@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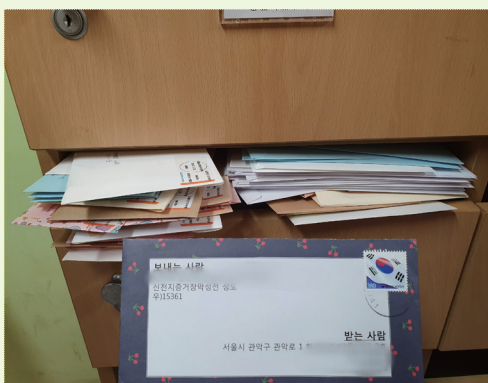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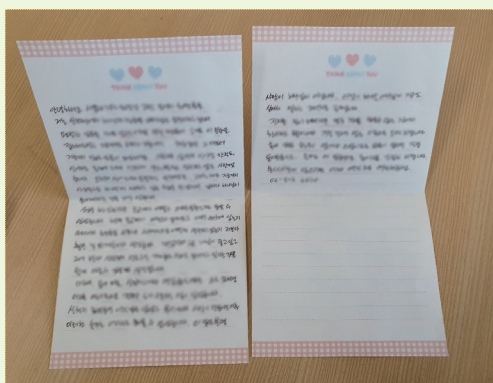
신천지 학내 우편배송 사건

지난 2월 18일,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서울대기독인연합(이하 서기연) 소속 단체들 앞으로 127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 우편물에는 신천지교의 개종을 권유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손편지와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대한 홍보물이 담겨있었다. 이에 서기연은 소속 단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신천지 교리와 접근방법에 대한 강의 영상을 공유했다.

신천지의 서울대를 향한 포교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신천지 산하 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은 UN 산하 조직을 사칭하며 동아리연합회 소속 10여개 동아리의 대표들에게 자신들의 위장행사에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가 동아리연합회에 발각되었다. 서울대 캠퍼스 내 이단단체 침투는 비단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교, JMS, 구원파 등의 이단단체들 역시 서울대로의 진입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1994년, 통일교계 동아리 <원리연구회>의 정식 동아리 등록 시도가 동아리연합회와 서기연과의 3자 대면을 거쳐 부결되었으며, 1999년, 동아리 <오손도손>

이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를 통해 JMS 산하 단체임이 드러나자 서기연은 동아리연합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고 JMS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오손도손>의 자진 해산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2004년 구원파계 동아리 <IYF>와 <녹색회>의 동아리연합회 가입이 중앙동아리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단단체의 교내 진입 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외에도 이단단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연합 차원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단 대처를 위한 교육을 위해 2015년도 신앙 OT 준비모임에서 학원복음화협의회 차병호 간사를, 2020년도 신앙 OT 준비모임에서 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 장근성 목사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다음 서기연 연합예배에서는 모든 예배참가자들에게 이단 대처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단단체들의 교세가 확장되며 포교전략이 점점 더 치밀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연합 차원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져가는 실정이다.



2020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

지난 2월 1일(토),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500동 목암홀에서 원단금식기도회를 가졌다. 원단금식기도회는 2년마다 진행되는 기도회로, 이 자리에 학생, 교수, 간사,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한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2020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는 ‘찬양과 감사’, ‘회개’, ‘대학복음화’, ‘나라와 열방’, ‘통일’을 주제로 아

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대학복음화를 넘어 민족복음화에 힘쓰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서울대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임기자 취임사



안녕하세요. 2020년 진나빛 신임 학생기자 남명현(종교18)입니다. 진나빛을 통해 중앙위원 취임사를 기고한 뒤 일년 만에 학생기자 취임사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리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서기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모든 사역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중앙위원으로서의 모든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중앙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양한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며 실 새 없이 달리다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지체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웅기중

기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합의 목적과 방향성을 망각한 채 사역 그 자체에 몰두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중앙위원직을 사

임하고 한 걸음 뒤에서 연합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정리하려 합니다.

2020년은 서기연 30주년이자 진나빛 100호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진나빛 학생기자로서 지난 서기연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며,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진나빛을 통해 서기연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나빛 학생기자로서 누구보다 서기연과 캠퍼스에 관심을 갖고, 2020년에 서기연과 캠퍼스 가운데 더욱 넘쳐흐를 기쁜 소식(福音)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현(종교 18)